

개인이 법인에게 이자소득 지급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Q 당사는 개인(대표이사)에게 4.6%의 이자로 자금을 대여한 후, 상환 받았습니다. 원천세는 공제하지 않고, 당사가 대신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법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지요?

A 귀사(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개인(대표이사)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여부 확인 건 (구매, 연구개발, 영업 글로벌조직 구성원에 대한 비용 보상청구)

Q 당사에 소속되어 있는 구매팀, 연구개발팀, 영업팀은 글로벌조직의 구성원으로 당사의 업무 뿐 아니라 본사(독일) 또는 지역본부(중국)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당사는 본사(독일) 또는 지역본부(중국) 업무에 해당하는 비용(실비)을 산정한 후 관리비용(Transfer price 5%)을 추가하여 매월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영세율 기타) 신고대상인지 여부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당 청구건이 실비 보상적인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영세율 기타) 신고대상인지 여부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하여, 신고대상 건 이라고 한다면 해당거래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진신고시 가산세 감면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역시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사(독일) 또는 지역본부(중국)역시 글로벌조직 구성원이 당사를 위해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A 외국법인의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매출세액신고대상이며 외화입금증명서나 용역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하여 영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

외국법인의 업무비용을 산정한 후 관리비용을 추가로 산정하여 청구하므로 일종의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익(매출)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반영하여야 하며 영세율매출 누락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신고기한이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해 수정신고시점에 따른 차등된 가산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당사가 생산하지 않고 해외 특수관계자가 생산 후 납품 시 당사 수금할 수 있는 방법 문의

Q 당사는(A)가 생산하지 않고 해외 특수관계자(B)가 생산 후 해외고객사에 납품 시 당사(A)가 수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현상

1. 실물 : 특수관계자(B) 생산 → 해외 고객사 납품

2. 수금 : 해외 고객사 → 당사(A)

(해외 고객사는 반드시 당사A로 수금을 하길 원하는것 같음.)

■ 문제점

1. 당사(A) : 재고 출고 및 완성에 대한 이력이 없으므로 수불 문제 발생.

2. 특수관계자(B) : 당사(A)에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하나 실물거래 및 수출서류 등도 없기 때문에 청구 수단 없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에게 수금이 될 경우, 특수관계자(B)에게 송금을 해 줘도 세법 및 회계 처리 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A 귀사(A)의 거래가 아닌데 귀사가 거래대금만 대신 수수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세법상 판단사항이 아니며, 귀사가 대신 수수한 경우 세금탈루 등의 의도가 없고 실제로도 세금누락 등이 없다면 단순 대신수수 자체가 세무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모든 거래는 실제 거래당사자간에 종결되는 것이 좋으므로 귀사가 중간에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